

梅泉 黃玹 交遊詩 研究

황수정*

〈차례〉

- I. 머리말
- II. 교유시의 표현 양상
 - 1. 불운한 스승에 대한 情恨
 - 2. 시적 논쟁을 통한 友誼
 - 3. 죽음에 대한 情操
- III. 맺음말

I. 머리말

梅泉 黃玹(1855~1910)은 평생 지방에서 시대를 논한 시인이다. 그는 34세에 성균관 생원시에 급제하였다.¹⁾ 그러나 스스로 중앙에서의 벼슬 생활을 포기하였다. 이는 당시 중앙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혼탁해진 세상에 기인한다. 즉, 중앙에서 벗어나서 세상보기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매천은 交遊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으며, 詩作에 있어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매천의 교유는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평소 강직한 성품으로 高官이어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제와 붕우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과는 만년에 이르러서까지 그리워하면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²⁾

交遊에는 반드시 벗 사이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사랑과 존경으로서의 사귀, 학문과 道義로서의 사귀, 同質的인 시대관이나 사회관에 의한 사귀 등 그 내포는 다양하다. 이렇게 교유의 기본은 서로 사귀는 사람들간의 마음이나 뜻이 상통함에 있다.³⁾ 한편의 詩가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언어의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언어의 분석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의미 및 그 시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다.⁴⁾ 이런 점에서 볼 때 매천의 교유시도 시대를 말하고 사회 변화에 민감한 표현 양상을 지녔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매천의 교유시를 살펴서 그 표현 양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매천이 평생 교유

* 조선대학교

1) 김택영, 『성균관생원황현전』,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목첩편』 상권, 미래문화사, 1985, 33쪽.

太上王二十五年 以鄉貢生員試初試生 赴會試于京 而鄭判書範朝 爲試官範朝總弟主事萬朝 素因建昌識玹 而重玹才特深...選置第一蓋再舉而始諧矣

2) 그 예로 1900년 세모에 매천은 <歲暮懷人諸作>이라 하여 평생 잊지 못할 20인의 교유를 그리워한 시를 작성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유인물에 대한 인생관이나 문학과 등 교유에 대한 정조를 세세히 노래하고 있다.

3) 박준규, 『송재 나세찬의 교유인물과 교유시』, 『송재 나세찬의 시문학연구』, 전라남도, 1996, 4쪽.

4) 강대석,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광사, 2004, 246쪽.

했던 인물⁵⁾ 중에서 불운했던 스승에 대한 情恨을 노래한 시, 詩友들과 더불어 시적 논쟁을 통해 友誼를 나타낸 시, 평생의 벗인 지음에 대한 情操를 표출한 시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매천의 교유시 의미를 밝히고, 그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교유시의 표현 양상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사람은 환경과 연령의 변화에 따라 의식과 사상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변화가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에 따라 각자 다를 것이다.⁶⁾ 더구나 믿음의 바탕이 된 교유를 통해서도 더욱 삶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매천은 11세 때 출생지인 광양에서 구례로 유학하여 시문의 기초를 배웠다. 그 스승이 바로 川社 王錫輔(1816~1868)이고, 그의 長子인 鳳洲 王師覺(1836~1896)과도 사제 관계를 맺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승으로 모신 두 사람에 대한 정을 매천은 시에서 각별하게 표현한다.

24세 때 처음으로 상경하여 秋琴 姜璋(1820~1884)를 만나서 교유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만나기를 고대하던 추금과의 만남은 매천에게 중앙에서 詩的 교유 발판이 되었다. 26세 때 송악으로 滄江 金澤榮(1850~1927)을 찾아가 만났다. 27세 때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문인이고 실질적인 문단 맹주 역할을 한 寧齋 李健昌(1852~1898)을 만났다. 백년지기라고 할 정도로 깊어진 이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역사와 시문에 관심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왕천사의 자손들 중에서 小川 王師瓚(1846~1912)과는 시풍에 대한 논쟁을 통해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시론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논쟁한 石亭 李定稷(1841~1910), 한말 선비의 처세에 대한 논의를 피력했던 海鶴 李沂(1848~1909)와 교유한 시가 있다. 구례의 二山 柳濟陽(1846~?)과는 평생지교의 정을 노래한다.⁷⁾

1. 불운한 스승에 대한 情恨

본절에서는 이상에서 설명된 인물 가운데 매천 스승과의 交遊詩 위주로 논의하겠다. 매천의 정신적 스승 왕석보에 대한 글과 함께 실제 매천의 교육을 주도한 봉주 왕사각에 대한 시, 그리고 중앙에서 스승 역할을 한 추금 강위에 대한 시를 살펴보겠다. 시대와 신분에서 다른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 스승에 대한 매천시의 情恨을 고찰하고자 한다.

1) 悵鬱의 정한

王錫輔(1816~1868)는 구례군 광의면 川邊里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胤國이며 호는 川社이

5) 류연석·황수정, 『梅泉의 交遊를 통한 意識世界 研究』, 『과학과 교육』 10집, 순천대 과학교육연구소, 2002, 31~61쪽.

6) 권순열, 『승려와의 교유시』, 『송천 양응정의 시문학 연구』, 월인, 2002, 93쪽.

7) 그밖에도 하동 출신 南坡 成蕙永(1844~?)과 순천 출신 西堂 尹鐘均(1861~1940)과의 교유시도 莫逆之友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매천의 동문 수학인 홍암 나철, 文友인 박창현이 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제자이며 친제인 黃瑗이 있고, 제자 김상국, 권봉수, 홍수 형제 등과 교유가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매천 학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다음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다. 고려 태조 왕건의 15번째 아들인 東陽君의 후손이며, 본관은 開城이다. 고려시대 왕실과 함께 부귀를 누리던 개성 왕씨는 조선조 丁酉再亂時 石柱關 전투에서 공을 세운 王得仁의 5대조가 되는 王淨이 처음으로 구례에 거주하게 되면서 구례가 개성 왕씨의 은거지가⁸⁾ 되었다.

천사에게 배우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다. 부지런히 지도하였으며, 돈 없는 이들은 먹이고 입히며 지도했다. 즉, 천사는 뛰어난 실력으로 과거에 나아갔으나 응하지 않고 귀향하여 평생을 은거한 학자였다. 매천은 스승인 천사의 시풍과 시인으로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호남 동쪽에 봉성현이 있는데, 全省 중에서 彈丸만한 작은 고을이다. 천사 왕선생이 나온 이후로 全省이 鳳城을 詩鄉으로 추켜올렸다. 지금 선생이 돌아가신 지 이십여 년에 선생을 추종하는 詩派의 흐름이 점점 넓어져 차차 작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천사같은 분이야말로 한 지방의 風氣에 관계되는 분이라고 할 만하다.⁹⁾

매천은 스승 천사를 탄환처럼 작은 고을을 시향으로 추켜올린 풍기에 관계된 분이라 하였다. 이는 스승 사후에도 따르는 훈도들이 끊이지 않는 데서 말한 것이다.

천사의 門人으로는 매천을 비롯해서 대종교의 창시자인 弘巖 羅喆, 대한제국 말기에 궁내부 비서관으로 고종의 가장 측근에서 보필했던 竹坡 金鳳善 등이 있다. 이들은 직접 천사의 훈도를 받은 문인들이다. 개화운동가이자 애국지사였던 海鶴 李沂도 구례로 이거하여 천사의 門人들과 교류하며 살았다.¹⁰⁾ 이처럼 亂世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우국지사를 많이 배출하였는데, 이는 천사의 가르침과 생활이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王師覺(1836~1895)은 천사의 장남으로 자를 任之라 했으며, 호는 鳳洲이다. 매천은 어린 시절 봉주의 문하에서 시문을 수학했으며 매천의 아들 또한 같은 문하에서 수학했으니, 2대가 한 스승을 섬긴 것이다.

봉주는 어려서부터 詩才가 높아서 인근 향시를 휩쓸었으나, 시국이 날로 그릇되어 가자 과거에 대한 뜻을 접고 낙향했다. 이후 구례 만수동으로 이거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했다. 봉주는 憤懣함과 憂患과 근심, 걱정의 회포를 시에다 부치었다. 흥이 지극해지면 시를 지었으나 이것을 남겨두면 무엇하겠느냐며 모으지 않았다.¹¹⁾

매천은 봉주의 시를 「鳳洲詩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우리 고을에 왕봉주 선생이 계신다. 시를 연마한 지 30년으로 근체시에 더욱 뛰어났다. 일찍이 말하기를 ‘송나라에 시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남의 말을 무조건 믿는 자들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 법은 范成大와 陸游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그 말은 우아하고 그 기운은 老蒼하여 씹으면 옛 맛이 있다. ... 그런데 그

8) 왕수환, 「王考川社府君行狀」, 『開城家稿』.

9) 황현, 「川社詩稿序」, 『매천전집』 권2,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80쪽.

湖南之東 有鳳城縣 蓋於全省 彈丸地也 自王川師先生出 而全省以詩鄉推鳳 城今踞先生歿 已二紀 而派流漸廣 稍稍升作者之列若先生者 可謂關一方之 風氣者也.

10) 장선희, 「근대후기 호남지역의 한문학 활동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1, 271쪽.

11) 왕수환, 「先父鳳洲府君行狀」, 앞의 책. 봉주의 遺稿 중에서 초년에 지은 것은 부친인 川社가 대신 수습한 것이고, 만년의 것은 손자인 경환이 수업을 받으면서 수습한 것이며 중년에 지은 것은 하나도 수습하지 못하였다.

지은 시에는 남몰래 근심하는 마음과 佛鬱·諷刺한 말이 많다. 『시경』삼백 편의 뜻으로 보면 怨에 해당하는 시가 반이 넘는다. 이것은 구양수가 이른바, 궁한 이후에야 시가 공교해진다는 것인가?¹²⁾

매천은 봉주의 시가 근체시에 뛰어나고 南宋의 범성대와 육유를 법으로 삼아서 음미하면 옛 맛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용은 불평과 풍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매천이 宋詩에 경주한 것이나 시대현실을 바로 보려는 비판적 안목이 여기서 키워진 것으로 보인다. 매천이 봉주스승을 생각하며 지은 시 <憶王鳳洲先生>¹³⁾를 살펴보겠다.

曾浮南海獨相求 일찍이 남쪽지방에서만 지냈을 뿐
又向金剛不與謀 금강 찾는 일 도모하지 않았었지
紅荳花殘霜漸近 붉은 꽃 시들어 가니 가을이 오려나?
素紈書阻雁初流 하얀 책갈피 열자 기러기 찾아오네
癡人漫畫秋山旅 화가는 가을 산 그림 잘도 그려내고
高士應回雪夜舟 시인은 하얀 밤 나룻배를 읊어대네
漢上三峯西望極 한수 위에 三峰은 서쪽으로 향해있고
棄聲虫語寄閑愁 가을 풀벌레만 한가한 수심을 전해주네

이 시에는 스승에 대한 안타까운 情이 녹아있다. 매천은 높은 시재에 비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후학 양성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는 봉주스승의 수심을 노래한다. 수련에서는 평소 현재[남해]와 과거나 미래[금강]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스승에 대한 존경이 담겨있다. 다시 말해 지리산에 대대로 칩거하면서 과거 조상들의 榮華, 미래 벼슬이 주는 安定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연한 스승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함련에서는 시각적 효과[붉은 꽃]와 시간[가을]에 대한 의미를 합치시켜서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스승에 대한 노고를 말한다. 상구에서 ‘붉은 꽃이 시들어가는 것’은 봉주 스승의 청춘, 혈기도 스러져가 노경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구에 ‘하얀 책갈피 열자’는 것은 계속된 스승의 학문의 깊이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항상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는 스승에 대한 정한이 드러난다. 경련에서 이 시는 발상의 전환을 한다. 짐짓 산수에 대한 의경을 표출한 듯하나 사실은 스승의 학문세계에 대한 치적을 강조한다. 매천은 봉주를 癡人[화가]이기도 하면서, 高士[시인]로 표현했다. 즉, 화가가 가을 산을 잘 묘사하듯이 봉주의 학문이 깊고 세밀함을 뜻한다. 하구에서는 시인이 하얀 밤 나룻배를 읊듯이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된다. 이로써 멋스러움까지 겸비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미련에서 풀벌레 소리의 청각적 효과를 함께 늘 일관된 스승의 수심을 이입한다. 수련에서는 의지가 강한 스승의 모습을 그렸다면, 여기서는 좀더 인간적인 스승을 묘사한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근심하는 마음과 佛鬱의 말이 많다고 한 매천의 분석에 따른다면 자신의 가문에 대한 시대적 좌절에서 오는 불운과 벼슬에 대한 怨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매천은 스승의 모습에서 한가한 수심을 엿본다. 불운한 스승에 대한 정한을 드러낸 것이다.

다음은 왕사각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 <哭鳳洲王先生>¹⁴⁾ 3수중 2수를 살펴보겠다.

12) 황현, 『鳳洲詩集序』, 『매천전집』 권2, 69~70쪽.

吾鄉 有王鳳洲先生者 攻詩 且三十年 於近體尤工 嘗曰 趙宋無詩者 皆耳食者也 故其法以范 陸爲宗其詞嫺 而其氣老蒼 嚼之 有古味 … 然其所著 多幽憂之思佛鬱 諷刺之言 求諸三百篇之旨 則可以怨者 過半此 歐陽子所謂窮而後工者歟.

13) 황현, 『매천전집』 권3, 176쪽.

自我童年以丈呼 내 어릴 적 어른으로 모셨는데
 通家師友世應無 한 집에 師友관계는 세상에 드문 것인데
 烟霞一榻棲南岳 烟霞가 자옥한 남악에서 내내 살아왔고
 雨雪聯筇赴上都 雨雪 속에 지팡이 끌고 上都에도 올랐지
 萬事天寒清灑淚 만사는 이미 灑水의 눈물이 되었고
 千秋歲暮輞川圖 千秋는 이제 망천의 그림 되어 버렸네
 六旬未出窮愁外 六旬에도 곤궁한 근심 벗지 못하더니
 細檢遺詩眼欲枯 남긴 시 읽으면서 자꾸만 눈물을 닦네

이 시는 매천이 어릴 적부터 믿고 따랐던 스승에 대한 애도시다. 輓詞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시이므로 직접적 교유의 현장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생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은 글이다. 그러므로 교유의 정을 살피는 데에 중요 자료가 된다. 시적 교유면에서는 일방적인 작시지만 생전의 교유를 생각하게 하므로¹⁵⁾ 매천과 봉주와의 교유를 밝히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봉주 일가는 文才로 뛰어나 세상에 보기 드문 사우의 집안이다. 깊은 산중 즉 세상과 동떨어진 지리산에 대대로 거처하였다. 세상의 모든 일 어긋나기만 하였고, 이제는 죽음에 이르러 눈물만 흐른다고 정한을 드러낸다. 봉주는 일찍이 京師[上都]에 올라 벼슬을 꿈꾸었지만, 평생 그 怨이 이루어진 바 없이 궁수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시마다 눈물과 怨이 담겨 있으니 슬픔에 겨워 자꾸만 눈물을 닦게 된다.

스승의 怨은 곧 제자의 恨이 되어 공교한 시를 이룬다. 앞서 밝힌 바대로 매천이 쓴 「봉주 시집서」에서 보면 ‘궁한 이후에 시가 공교해진다’는 구양수의 말을 인용했듯이 천사를 비롯한 봉주 및 왕씨 일가의 불운과 곤궁함은 곧 그들의 시재에 그대로 침잠되어 시적으로 형상화되었고, 그것은 다시 매천에게로 그대로 이어져 매천시의 풍격을 이룬다.

물론 여기서 ‘궁’이란 물질적인 빈궁보다는 실의와 좌절 같은 정신적 가치를 뜻한다. 단순한 경제적 결핍은 시인의 내면에 발분의 욕구를 제고시키는 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인의 정신적 갈등이 배제된 궁은 窮이 아니라 貧일 뿐이다. 다시 말해 궁의 상황이 가져다 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극단의 괴리감에, 여기서 벗어나려는 자아의 노력이 덧붙여져서 시에서 그 결과물 가져온다는 것이다.¹⁶⁾ 따라서 매천도 스승의 궁[실의·좌절]에서 공교한 시의 이치를 깨닫고 정한을 노래하며 풍취를 이어간다. 즉, 매천은 왕씨일가와 사제의 관계를 통해 스승의 시대적 좌절에 따른 불운을 불운과 풍자의 정한으로 그려낸 것이다. 다음은 매천의 중앙에서 스승인 강위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시름의 정한

姜瑋(1820~1884)의 字는 仲武, 堯章, 韋王 등이고, 호는 秋琴, 聽秋閣, 古權堂 등이다. 廣州 武班 출신인 추금은 무과에 뜻이 없어서 14세에 상경한다. 이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다가 蓉山 鄭健朝(1823~?)家の 문객이 되었으나, 24세에 과거에 뜻을 버리고 杞國 閔魯

14) 황현, <哭鳳洲王先生>, 『황현전집』 상, 122~123쪽.

15) 박준규, 앞의 책, 10쪽.

16) 정민, 『한시미학산책』, 숲, 1996, 221~222쪽.

行(1782~?)에게 4년여의 경학연구에 매진한다. 그 후 스승의 타계로 김석준과 함께 추사 김정희의 문하로 복학을 계승하여 연장자로서 詩才를 인정받고 중인층의 시 동인들에게 학풍을 확산시켜 맹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 반면 추금은 63세에 비로소 문반의 말단 벼슬인 繕工監 假監役(從9品)을 받았다.

1878년에 매천(24세)이 추금(59세)을 처음 만났는데 이는 매천의 첫 상경 이유이기도 했다. 이 때 매천은 그 감격을 “나는 아직 선생을 뵈지 못했지만, 일찍이 뵈 것처럼 생각되네. 한 번 뒤를 예상해 보면 마땅히 어떻게 연모해야 할까(我不見先生, 思之如會見. 豫想日見後, 當作如何戀?)”¹⁷⁾라고 읊었다. 지방에서 추금에 대한 명성을 듣고 만나기를 고대했는데, 마침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을 때의 기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실제로 한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한 연모가 있었으므로 만난 듯한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추금을 직접 만났을 때 존경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염려하는 진솔한 감정이 드러나 있다.

그 후 매천은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의 서기로 渡日하는 추금을 전송하면서<奉送姜秋琴老人 赴日本>¹⁸⁾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潤色王猷隨使節 국서를 윤색하여 사절을 수행하니
 書生識務古稀聞 서생으로서 시무를 아는 것이 고래로 드물었네
 蠹餘宿藁平邊策 좀먹은 묵은 문서는 평변책인 데
 鵬背孤帆祭海文 외로운 뱃전에서 제문을 올리네
 後 略

이 시는 사절단의 일행으로서 수행 길에 오른 추금을 노래했다. 무반 출신으로서 무과에 뜻이 없어 상경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 결국 과거에 뜻을 버린다. 그러나 그의 시재는 문단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2구에 보면 글 하는 선비는 시무에는 어두운 편인데 추금은 경세가로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음을 칭송한다.

추금은 평소 ‘시에는 말로만 지은 것이 있고, 뜻으로 지은 것이 있다. 또 시에는 자기만을 위해 지은 것이 있고, 천하를 위해 지은 것이 있다’¹⁹⁾라고 하여 시는 말로만 꾸며낸 개인적 감정의 토로보다는 천하의 흥망·성쇠를 근심하고 우려하는 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추금의 시관에서 비롯했듯이 그의 행적을 나타낸 매천의 시는 스승의 확장적인 생활 태도를 그려낸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나아가지 않아 궁[좌절]한 위치에 있었으나, 한편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경학]를 넓히고, 김정희의 문하로 새로운 학문[복학]을 계승 연장하여 詩才를 인정받고 중인층의 시동인들에게 학풍을 확산시키는 맹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 매천은 이러한 추금의 활약상을 흠모하면서도 그의 깊은 시름의 정한을 ‘외로운 뱃전’으로 그리고 있다.

1884년 추금(65세)이 죽자 매천은 <哭秋琴先生>²⁰⁾ 4首를 지었는데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7) 황현, 『매천전집』 권3, 153~154쪽.

18) 황현, <奉送姜秋琴老人赴日本>, 『매천전집』 권1, 37쪽.

19) 강위, 『강위전집』 상, 아세아문화사, 1987, 386~387쪽.

20) 황현, 앞의 책, 42쪽.

萬事如雲散未收 모든 일 구름처럼 흩어지고 미는 것
 蕭蕭六十五年秋 쓸쓸한 육십 오 년의 세월이었네
 窮愁下筆權衡策 깊은 시름으로 권형책을 쓰고
 汗漫携琴海岳遊 땀에 젖어 거문고 안고 해악에서 노닌다
 古洞梅花悲鐵笛 옛 골짜기 매화엔 쇠피리 슬피 울고
 寒垣風雪弊貂裘 변방의 눈보라에 갖옷이 헤어졌네
 仙棺待蓋論應定 생을 그만 둔 뒤에 논의가 정해지지만
 可但詩家第一流 시가의 첫째임에는 틀림없네

이 시에서 매천은 강위의 신분적 한계에 대한 시름을 절실히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대 시인 중 최고임을 말하고 있다. 곤궁한 사람의 시가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시에 대한 전업 때문이다. 때를 만나지 못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요, 벼슬에서 물러났기에 詩業에 전념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공교로울 수 있는 것이다.²¹⁾ 하물며 평생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문반에 대한 기다림으로 지속했던 추금의 경우는 말할 나위 없이 작시에 골몰하며 수련했을 것이다.

이 시에의 1구를 보면 것처럼 바라던 말단의 벼슬을 말년에 받았으나 죽음 앞에는 구름처럼 흩어지고 만다고 피력한다. 3·4구에서는 추금의 그동안 좌절과 고뇌에 찬 행보가 드러난다. 5구에서는 매화에 순백한 고절과 쇠피리의 금속성 차가움이 슬픔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구에서는 살아생전 변방을 떠돌던 힘겨운 추금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의 삶이 비록 궁[실의]했어도 시가에서만큼은 첫째[일류]라고 칭송한다.

타고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추금은 말년에 받은 말단 벼슬에 감격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鄭建朝·李建昌·金弘集·金玉均 등의 伴佻으로서 수행하여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경세가로서의 견문을 넓히고자 했다. 개항 후의 격변기에 처하여 閔魯行과 金正喜의 문하에서 경학을 닦은 왜항지사로서의 행동반경을 보여주며 사대부 중에서는 무정 정만조·영재 이 건창이 그의 시 제자로 知己였으며 같은 추사 문하인 위당 신헌과도 각별한 인간관계를 맺었었다.

매천은 이미 1876년 강위의 제자였던 남과 성혜영과의 교류를 통해 강위의 시풍을 “두 글자 정과 한을 묘묘한 시의 진실된 이치로 전하니”라며 情恨을 基調로한 妙悟詩로 보고 추앙했던 바를 보면 宋詩와 근체시에 경도된 추금시에 매천시 風格 형성과 관계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매천은 추금의 깊은 시름과 땀에 젖은 거문고를 통해 곤궁한 삶의 모습과 함께 정한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시의 이치를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추금을 보는 매천의 시각도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승의 불운한 정한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매천의 교유시중에서 불운한 스승에 대한 정한을 읊은 시를 살펴보았다. 매천은 그의 스승들이 비록 현재는 窮한 위치에 있으나 詩才만큼은 達의 경지에 있음을 말했다. 즉, 왕천사 봉주에게서는 높은 시재에 비해 시대적 좌절에서 오는 佛鬱의 정한을 그렸으며, 추금 강위에게서는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시름의 정한을 나타냈다.

2. 시적 논쟁을 통한 友誼

21)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40쪽.

본절에서는 매천과 詩友로서 시적 논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도 더욱 우의를 다지고, 존경과 격려로서 상대방을 배려한 시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왕천사의 자손인 소천 왕사찬과의 교유를 통해 매천은 자신의 시품을 밝힌다. 그리고 석정 이정직과는 서로 다른 시론에 대해 격론한다. 해학 이기와는 처세관의 차이로 인해 논쟁하지만 상대방의 우의를 받아들인다.

1) 自得에 대한 우의

王師瓚(1846 ~ 1912)은 천사의 셋째 아들이고 자는 贊之이며, 호는 小川이다. 소천의 성품은 介潔하여 구차하게 함하지 않고 부귀한 자에게 굽히는 바가 없었다. 소천의 시재는 호남에 이름이 높았지만 운수가 기이해서 湖南 場屋에 한차례 합격했으나 이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과거에 나가기를 단념하고 曠然自得하였다.

소천은 왕씨일문 중 가장 뛰어난 시인이었다. 매천은 소천을 이르기엔 영남 우도 南坡 成惠永, 호남 우도 石亭 李定稷과 함께 남방의 삼대 시인으로 여겼다.²²⁾ 매천은 성당의 두보에 매이지 않고 만당의 李商隱을 추종하는 소천의 확고한 주관에 감복했다. 그러면서도 매천과 소천은 시론에 관하여 많은 논쟁을 하였다. 그 일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일찍이 시험삼아 문기를 “그대는 근체시에 있어서 이의산만 존중하고 두보는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법이 차가움을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소천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그대는 말마다 두보를 내세우는 사람들 중, 한 구절이라도 두보와 가까운 것이 있음을 본적이 있는가? 가장 잘된 것을 뽑아도 강호시파의 말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도 두보가 아니면 배우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의산을 존중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배우고 싶어서였겠는가? 내가 본 바가 그러할 뿐이다”라고 했다.²³⁾

매천은 “내가 일찍이 송시를 즐겨 읽고 晚唐을 즐기지 않았는데 소천은 그렇지 않으므로 과거의 뜻을 거듭 밝혔다”²⁴⁾라 하여 시대로 우열을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시대의 장점을 받아들여 名家論을 주장했던 것이다. 두 사람의 논쟁이 당송간의 논쟁을 보는 듯 하나 두 사람은 모두 정밀한 근체시에 힘을 기울인 점을 보아 서로의 시풍에 공통점이 많다²⁵⁾고 밝혔다.

매천의 <和小川論詩六絶>²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年代誰能辯室堂 연대로써 入室과 昇堂을 구별할 수 있는가.
宋人高處欲無唐 宋人の 높은 곳은 唐人조차 무시하고자 하네.

22) 황현, 『壽王小川六十歲序』, 『매천전집』 권2, 50쪽.

近日南方之詩 於嶺右 推成南坡 湖右 推石亭 其稱鼎足而駸駸欲執耳者 吾鄉有王小川先生 皆風流弘長 一時詞林之望也.

23) 황현, 『小川詩集序』, 위의 책, 45쪽.

余嘗試問曰 子於近體 尊義山 而不尊杜 其如法涼何 小川笑曰 子見言言 而杜者有一近杜者乎 極其選 不出江湖末派 而乃曰 非杜不學 我則無是也 尊義山者 亦豈欲必學哉 所見然耳.

24) 윤경희, 『황현의 시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80쪽.

25) 기대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사, 1999, 23쪽.

26) 황현, <和小川論詩六絶> 제1수, 『황현전집』 상, 91쪽.

君看蘇陸凌宵氣 그대 보시오 소식과 육유의 하늘 찌르는 기세가
肯許曹羅與頡頏 曹松과 羅隱이 함께 나란함을 허락하는가

이 시를 보면 晚唐詩가 宋詩보다 낫다는 소천의 주장에 대해 매천은 연대를 기준으로 시의 우열을 나눌 수 없다고 하였다. 송의 소식과 육유를 만당의 조송과 나은에 비교하면 누가 더 우수하겠냐고 반박한 것이다.²⁷⁾ 소천은 같은 맥락에서 ‘驚人語’만을 탐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매천은 “말이 남을 놀라게 하지 못하면 전해지지 않는다(語不驚人定不傳)”라고 논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매천은 宋詩, 소천은 唐詩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다.

매천은 小川 王師瓚과의 이러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시풍에 대해 밝혔다. 여기서 두 사람 시론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소천은 “끝자국이 없는 곳에 이르러야 融圓이 된다(到無鑿處是融圓)”고 하여 시의 표현을 위해 시어를 조탁하는 苦吟派적인 매천의 시작태도를 지적하였다. 매천은 “원도 모난 데를 깎아야만 비로소 圓인 원이 된다.(圓到剗方始恰圓)”하며 두 보 같은 대가도 佳句를 위하여 깎고 다듬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苦吟의 작시태도를 표명함으로써 당시보다 宋詩쪽으로 경도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매천의 <歲暮懷人諸作 王小川師瓚>²⁸⁾을 살펴보겠다.

時月不見我 한 동안 나를 만나지 못했더니
輒復形吟咏 문득 다시 한번 읊조려보네
平生嗜痂癖 평생에 가벽을 앓아왔으니
痴孰與君競 어느 누가 그대와 다투겠는가
憶我舞勺年 우리의 舞勺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君髭已滿鏡 그대의 코밑수염 벌써 거울에 가득했지
追隨三紀餘 그 후에 삼십 여년이 지난 지금
差差雁行并 들쭉날쭉 나란히 함께 걸어왔었지
交在師友間 사귀어 師友 사이에 있었기에
情摯頗簡敬 서로의 예우가 자못 간경하였지
所敬才最畏 공경할 비는 재주가 가장 두려운 것
風雅仗骨性 풍이는 장골한 성품이었지
...
始若怕爭長 처음에는 다툼이 두려웠지만
辭命稍報聘 사명이 점차 報聘을 하였지
駑駘仰駮耳 둔마는 駮耳를 우러러 보는 것
終覺後矣瞠 마침내 깨달은 후 밝아지는 것
最是枵腹中 가장 배가 고플때 만이
如雲意氣盛 구름처럼 의기가 성해지는 것
每當劇談時 늘 빨리 얘기할 상황을 당할 때는
奮來髯逾勁 분격하여 각오가 더욱 견고해지겠지

27) 위의 책, 같은 곳.

28) 위의 책, 243~244쪽.

...

이 시는 1수에서 소천이 평생 가벽을 앓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천의 몸이 누구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소천은 체구가 크고 인물 또한 좋은 상이었는데 소천의 궁함을 보고 구례지방의 父老들이 相法도 족히 믿을 것이 못된다²⁹⁾는 말이 있었다. 2수에서는 매천과 소천이 서로 교유한 지 30여 년이 되면서 그동안 서로의 삶과 문학을 토로하며, 때론 논쟁을 통해 의견을 나눈 것을 피력했다. 그런 논쟁을 통해서도 서로의 우의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시우로서 평생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3수에서는 사립에 있어 사우로 여기고 공경히 대한 것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재가 비상함을 두려워한다. 이는 벗에 대한 칭송이면서, 또한 시의 경지를 늘 연마하는 매천의 속마음이 조심스럽게 드러난다.

다음에서는 매천은 조심스럽게 소천과의 시적 논쟁에 대한 것을 술회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시풍에 대해 시로써 논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서로 시풍에 대한 인정과 각자의 풍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

또한 ‘가장 배가 고플 때만이 구름처럼 의기가 성해지는 것’이라 하여 궁한 후에야 공교함이 있다는 표현을 한다. 즉, 궁벽한 시기에 부딪쳐야만 意氣가 마치 구름이 일듯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논쟁시에 급박하고 흥분되는 상황을 ‘수염이 굳어지듯’ 각오가 더욱 견고해진다고 하여 시인의 급박함이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매천은 소천과의 시적 논쟁을 통해 자신의 시풍을 피력하면서도 서로의 격려와 존중을 아끼지 않는 우의를 드러낸다. 다음은 시론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이정직과의 교유시를 살펴보겠다.

李定稷(1841~1910)의 자는 馨五이고, 호는 石亭이다. 본관은 新平이며 全北 金堤 출신이다. 실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詩書畫에 모두 일가를 이루는 등 다방면에 박학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석정(54세)이 구례로 매천(41세)을 찾아갔던 것은 1895년이였다. 이후에 두 사람은 평생 교유하면서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고 각자의 시론을 세워나갔다.

다음은 매천의 <歲暮懷人諸作 李石亭定稷>³⁰⁾의 1·2수를 먼저 살펴보겠다.

此老窮不死 이 늙은이 끝까지 죽지 않아
天眷讀書種 하늘이 독서의 종자로 본 것인가
似有衆仙人 여러 선인들이 있는 듯 하더니
暗中爲之擁 몰래 그를 위해 껴안아 준 것인가
僂僂鏡影畔 등잔 그림자 사이로 얼핏 보이는 데
肅肅芝眉聳 상기된 얼굴빛이 엄숙하기만 하네
座香可十年 향기에 앉은 것이 십년이던가
尙記吾門踵 아직도 내 문 찾은 발길을 기억하네

이 시에서 매천은 석정의 끊임없는 독서열을 드러낸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독서의 종자

29) 王粹煥, 『叔父小川公行狀』, 앞의 책.
吾鄉之父老曰以小川之相而有小川之窮相法果足信耶.

30) 황현, 앞의 책, 242쪽.

로 석정을 보낸 것이 아닌가 또는 여러 선인들이 그의 독서를 위해 은연중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의 깊이 있는 책읽기를 그려내고 있다. 함께 공부하면서 얼핏 석정의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독서에 깊이 빠진 듯 하다. 공부에 집중하면 본인도 모르게 상기되는 얼굴을 그려내면서 엄숙하고 숙연함마저 감돌게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석정은 大家를 취하고, 매천은 名家를 취하였다. 매천은 석정을 평하여 말하길, “박은 커도 쓸모가 없다. 썩은 박과 같다.” 이에 석정이 말하길, “박은 박이다.” 매천은 “비록 적을지라도 담배는 날알마다 씨가 영근다”고 하며 서울에까지 이름이 있기는 나뭇잎에 없다 하니, 서로 웃고 말았다.³¹⁾

위에서처럼 두 사람의 평소 시론에 대한 견해차이는 분명하지만, 서로 상대방이 정진하고 연구하는 모습에 격려와 존중을 표한다. 위에서 매천은 법고보다는 개인의 성정을 강조하였다. 즉, 법고의 대상으로는 각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名家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석정은 법고를 통해서만 高格의 自家之詩를 이룰 수 있으며, 법고의 대상은 盛唐의 李杜같은 大家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두시의 칠언률을 集大成³²⁾이라고 평가했다. 석정은 이렇게 法古를 통해 古人的 격조 수준으로 자신의 풍격을 높이하고자 했다. 그러나 매천은 석정의 격조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석정의 법고 태도를 “최고로 두려운 건 천 리마의 먼지 없는 발이, 오히려 법의 밧줄을 달게 멩에와 재갈을 받아들임(最怕飛黃絕塵足, 猶甘法縛受鉗鞅)”³³⁾이라 하여 석정의 법고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좋은 문장을 모방하고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개성에 따라 스스로 터득한 법에 의해 문장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다음은 3·4수에 관해 살펴보겠다.

年邁志愈奮 해가 갈수록 뜻은 더욱 분불한데
 賁育不足勇 賁育이라도 용감을 자랑하지 못하리라
 研精夜眸炯 연정에 밤 눈동자는 빛나고
 警惰晨背竦 경타에 새벽 등은 솟구치네
 飢火焦不涸 굶주린 불은 다 타서 마르지 않고
 沛然源泉涌 쏟아지는 원천은 한없이 용솟는다.
 數寸燕石稿 몇 치 안 되는 연석고를
 自珍雙壁拱 한 쌍의 구슬로 보배롭게 여기네

매천이 법고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 뜻을 표현한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태도는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유교논리 아래선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태도였다. 오천 년의 역사에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활약했던 중국한문학의 거대한 실체³⁴⁾ 앞에

31) 황원, 『追錄補遺』, 『매천전집』 권3, 45쪽.

與石亭爭其詩道 石取大家 梅取名家 評石曰 大而無用 如腐匏 石曰雖朽匏則匏矣 自評曰雖少如南草種 箇箇成實 坻之有聲 相笑而破.

32) 李定稷, 『海鶴詩集序』, 『海鶴遺書』, 3쪽.

杜甫之七言律 集大成也.

33) 황현, 『황현전집』 상, 139~140쪽.

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선비들은 문학을 배울 때부터 새로운 경지의 개척에 도전할 엄두도 못내는 것이 당시의 세태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석정의 식을 줄 모르는 정진을 노래한다. 그러면서 연정을 통해 더욱 눈동자가 빛나고 게으름에 놀라서 새벽 등이 솟구친다고 표현한다. 이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학문연마에 몰두하는 교우에 대한 우의적 시선이다. '飢火'라 하여 얼마 남지 않은 촛불은 타고 타서 마를 날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오직 정련에 몰두하는 交友의 모습이 友誼 가득한 목소리로 전해진다.

이상으로 소천 왕사찬과 석정 이정직과의 교유시를 살펴보았다. 매천은 두 사람과의 시적 논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설파하면서도 서로의 주장에 대해 경청한다. 다음은 해학 이기에 대한 시를 살펴보겠다.

2) 救國의 의지에 대한 우의

李沂(1848 ~ 1909)의 자는 伯會이고 호는 海鶴·梓谷·質齋·曉山子·南嶽居士 등이다. 本貫은 固城이며 全北 萬頃(現 全北 金堤郡 聖德面 大石里)에서 가난한 士流擇振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재질에 호방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유형원, 정약용 등의 학통을 계승 실학을 연구했으며, 천사의 문인으로 매천·나철·김봉선 등과 동문이다.

1890년 해학(43세)이 구례로 매천(36세)을 찾아가자 해학을 만난 후 매천은 <送李海鶴沂往達城>³⁵⁾을 썼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所嗟籠中翮	슬프다 새장 속의 새
常蓄摩空勢	항상 하늘로 나는 기세 지녔는데
我曹極可憐	우리신세 지극히 가련하니
此恨古來涕	예로부터 지은 눈물 한스럽구나

이 시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세상에 나아가 쓰이지 못하는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그러한 세상에 대해 분개하였다. 매천은 해학을 새장 속에 갇힌 새에 비유했다. 그는 늘 구국의 일념으로 하늘로 나는 듯한 기세를 지녔다. 그러나 벗의 실천적 기상을 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이는 이기의 가련한 신세이기도 하지만 매천을 비롯한 동문수학 문우들이 느끼는 당시 세태에 대한 어려움으로 드러난다. 그 뒤 매천의 권유로 이기는 구례로 이거하여 그 곳 문사들과 교유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우의를 다지면서도 서로의 시국관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해학은 1903년에 매천에게 처사적 삶보다는 구국운동의 최일선에 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즉, 해학이 매천의 처사적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여 매천의 모습이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은거로 비취질까 염려했다. 그러나 매천은 늘 나라의 안위를 고뇌하였으며, 실천해야 할 바를 지적했다. 이는 그의 역사서인 『매천야록』에서도 밝혀진다.

매천도 석정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해학의 안위를 근심하고 행동을 염려하는 글을 적기도 하여 시대를 논하는 벗으로서의 우의를 보인다.³⁶⁾ 실천적인 경세가인 해학으로선 매천의 처

34) 朱昇澤, 『黃玆의 詩世界』,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94.2, 181쪽.

35) 황현, <送李海鶴沂往達城>, 『황현전집』 상권, 77쪽.

36) 황현, 『答李石亭書』, 위의 책, 83쪽.

此吾家近日新聞耳 海鶴 經歲不返 近因邸鈔 見其落仕 未知發何狂言也.

사적 태도가 불만일 수 있겠으나, 매천은 은거하면서도 한시도 국가와 민족의 안위가 위태로운 현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또한 해학 생존시 <歲暮懷人著作 李海鶴沂>³⁷⁾를 통해 그의 인물됨을 소상히 밝히기도 하였다.

落拓杜樊川 낙척하기는 杜牧이고
 悲壯陳同甫 비장하기는 陳同甫이네
 恥銜文字技 문자의 기예를 자랑하길 부끄러워했고
 高談霸王輔 고담은 패왕을 보필하네
 直當從吾好 곧장 자기의 좋음만 좇을 뿐
 亦不畏人怒 남의 노여움 두려워하지 않네
 跼蹐風塵下 풍진 아래서 제대로 뜻을 못펴고
 長嘯望千古 길게 휘파람 불며 천고를 바라보네
 態態匣中劍 빛나는 갑 속의 칼로
 思一剗兕虎 兕虎같은 역적을 치려고 했네
 ...
 歲暮得一官 세모에 벼슬 한자리 얻었으나
 脫帽踏作土 사모 벗어 던지고 밟아버렸네
 我爲生民謨 내 백성을 위해 일할 뿐이니
 何會戀簪組 어찌 벼슬에 연연하겠는가
 舉手謝公卿 손을 들어 공경에게 인사하고
 復與博徒賭 다시 노름꾼과 더불어 전전했네
 花間擁趙瑟 꽃 사이에 거문고 끼고
 自製續金縷 스스로 속금루곡이나 지었네

이 시는 권세와 벼슬에 아부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해학의 평소 의지를 밝힌다. 또한 한 때 방황하던 해학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어, 매천은 해학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보인다. 여기서 해학을 낙척하기가 杜樊川(두목)같고, 비장하기는 陳同甫(진량)과 같다고 평한다. 이는 해학이 두 사람의 한 평생의 모습과도 상통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매천은 해학이 문장의 기예를 자랑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실천적 경세가의 태도를 칭찬하다. 그러면서 평생 학자로서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았던 자신에 비해 남의 노여움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기개를 노래한다. 이 시의 전반부는 해학의 기개와 기상을 노래하였다. 후반부는 그의 학문적 업적을 그리면서 한 점 벼슬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청렴함을 노래한다. 실제로 해학은 매천보다 1년 앞서 죽으면서 그 삶은 곤궁하였다. 그래서 끝내 포부를 펼치지 못한 벼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든다. 매천의 눈에 비친 해학은 올곧은 경세가로서 늘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비장한 각오의 소유자였다.

매천도 만년에 제자들이 시문의 ‘강’을 청하자 “너희들은 그릇된 학문을 하지 말고 신학문에 눈을 뜨라”³⁸⁾하며 자신도 신학교 설립에 적극 가담하여 모연소를 쓰고 지역 유지들의 출연

37) 황현, <歲暮懷人著作 李海鶴沂>, 『매천전집』 권1, 238쪽.

38) 金祥國, 『梅泉黃公墓地銘』, 『文墨萃編』 上卷, 144쪽.

을 더해 고향 구례 지천리에 사립학교인 호양학교를 설립하는 등 신학문 교육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지금까지 매천이 시우들과 시적 논쟁을 통한 우의를 드러낸 시를 살펴보았다. 문학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서도 존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의를 표현했다. 소천 왕사찬과 석정 이정직에 대한 시에서는 자득하는 모습에 대한 우의를 드러냈다. 그리고 해학 이기에 대한 시에서는 구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모습을 우의적으로 받아들인다.

3. 지움에 대한 情操

본절에서는 평생 사림을 통한 지움에 대한 정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히고자한다. 먼저 창강 김택영과는 신교의 관계로 국운이 쇠하자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망명하려 결심까지 하였다. 자신의 사후 문집에 대한 選詩를 부탁할 정도로 그의 학문과 문장을 신뢰한다. 영재 이견창과는 자신을 알아주는 벗에 대한 지움의 정조를 한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이산 유제양과는 평생 향리에서 30여 년 간 수창하면서 고향의 풍치와 절경을 노래하며 서로의 시재를 칭송한다.

1) 信望의 정조

金澤榮(1850~1927)은 개성 출생이다. 자는 于霖, 호는 滄江이다. 그의 시는 호방하고 화려하여 神韻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국망명이후에는 주로 우국적인 시를 많이 썼다. 특히 망국의 한을 작품 속에 담아내어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창강은 역사의식이 강한 학자로 민족의 녀과 선비로서의 양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한 것이다.

매천이 창강을 개성의 봉황새로 비유하며 읊은 시<歲暮懷人著作, 金滄江澤榮>³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文章類珍瑰 문장은 진귀한 보석과 같아서
不許魚目識 아무 눈에나 띄는 것이 아니다.
世見揚子雲 옛날 양웅 같은 이는
白首終執戟 늘그막에 이룬 것을 보지 않았던가
誰之千載下 누가 알았으리오 천년 뒤에
太玄能配易 『태현경』과 『주역』이 짝된 줄을
神崧有祥禽 신비한 송악에 새들 날아들더니
羽毛具五色 깃털이 오색을 갖추었구나
四海秋蕭琴 천하는 가을 바람만 소슬하니
竹實不可得 죽실을 얻지 못하고
飛飛俛一啄 날다가 한번 잘못 쪼운 부리가
竟爲羅者獲 마침내 그물에 걸렸으니
羨彼周罔梧 부럽구나 주망의 오동이어
春風滿王國 왕국엔 봄바람만 가득하리라

39) 황현, 앞의 책, 231쪽.

이 시에서 매천은 창강이 때를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그의 글은 진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세상의 앞일을 내다보는 원경에 있는 것을 찬양하였다. 결국 김택영은 문장으로서 보국의지를 담고 1905년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매천은 그와 함께 할 의사는 있었으나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포기하였다. 이에 매천은 시작저술로써 자신을 준엄히 다스려 위안을 삼았다. 매천과 창강은 서로 시재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창강은 매천에 대해 그의 시에서 말하길 ‘추금노인이 자리를 박차며 칭찬하고, 영재학사는 두량이 크다’고 전한다. 이는 매천이 경사에서 교유할 때 주변 사람들의 평을 전함으로써 그의 시적 재능을 평가한 것이다. 매천은 창강에 대한 신망을 글은 신운이 깃들어 짐작하기 어렵고, 필력은 날개 돋친 듯 표연히 날고 있네⁴⁰⁾라고 표현하듯 높게 찬양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매천은 ‘오색 깃털을 갖춘 신비한 새’로 창강을 표현한다. 자신의 막역한 벗으로서 친우의 재능과 실력에 찬사와 신망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창강의 시재에 대한 신망과 인정이 있었기에 자신의 시문에 대한 편찬을 부탁하기에 이른 것이다.

창강이 망명한 뒤 그를 회상하며 <寄滄江>⁴¹⁾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兩口妻兒一束書 처자 거느리고 한 묶음 책 짊어지고
 天涯遙訪季鷹居 멀리 장계직 집을 찾아갔네
 傍舟笑舉鱸魚網 배에 앉아 웃으며 고기그물 들어올리고
 楓晚吳淞夜火疎 가을저녁 오송의 밤 불빛은 가물가물 하네
 設到中州也杳然 중국은 예서 아득하기만 하여라
 夢中那得見山川 꿈결에서나 조국산천 보려는가
 聞君手弄淮心月 그대 창강의 달 그림자를 손으로 가리키는가
 萬里萍蓬不足憐 만리의 부평초를 가련타 하지 마소

이 시는 1905년 9월에 일제의 망국노가 되지 않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떠난 창강을 회상한 것이다. 이즈음 창강은 매천에게도 함께 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에 대한 편지를 매천은 『매천야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겠으니, 늙어서 島兒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蘇州와 浙江의 寓民이 되어 세상을 마치는 게 낫겠네. 자네도 나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⁴²⁾

여기에는 창강이 망명한 분명한 이유가 드러난다.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망국의 우민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벗인 매천에게도 함께 갈 것을 권유한 것이다.

매천은 벗이 처자를 데리고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 배에 앉아 웃으며 하릴없는 듯 고기그물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오히려 쓸쓸하게 그려진다. 또한 가을저녁 불빛이 가물가물 어른거린다. 이는 지우인 창강을 생각하는 매천의 그리움의 표현이

40) 박충록, 『조선 후기 삼대시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4, 320쪽.

41) 황현, 앞의 책, 326쪽.

42) 黃玿, 『梅泉野錄』 漢文本, 교문사, 1994, 178쪽.

友黃玿書曰 時事可知 與其老作島兒之奴 毋寧作蘇浙寓民 以終老 子能從我遊乎.

다.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에 불빛은 가물가물 아련하기만 한 것이다. 생각할 수록 창강이 가 있는 중국은 멀기만 하다. 또한 고국을 떠나 있는 창강이 조국 그리는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다. 그래서 혹시 꿈속에서라도 조국산천을 보겠지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타향에서 부평초 마냥 고생할 창강을 가슴아파하면서도 이국에서의 생활을 잘 견뎌 낼 벗에 대한 믿음을 보인다. 이것은 창강이 후원자인 장계직을 찾아갔으니, 학문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한다. 이는 창강이 문장보국을 위해 나라를 떠난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은 寧齋에 대한 시를 살펴보겠다.

李建昌(1852~1898)의 본관은 全州, 자는 鳳朝·鳳藻, 호는 寧齋·明美堂이다. 이조판서 是遠의 손자이고, 이조참판 象學의 아들이다. 출생지는 개성이나 선대부터 강화에 살았다. 천성이 강직하여 부정·불의를 보면 용납하는 바 없고 의례적인 의식이나 양보없이 소신대로 피력하는 성격이었다.

집안은 대대로 명문이었으나 영조 때 당쟁으로 인해 강화로 낙향하였다. 그 곳에서 조선 양명학의 태두인 鄭齊斗를 만나고 그로 인해 이후 6대에 걸친 150여 년 간 양명학을 家學으로 선택한 것이 강화학파이다. 그 학통을 이어받은 영재는 강화학파의 존재를 동생인 건승과 재종제 건방과 더불어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⁴³⁾

매천의 다음 시 <得寧齋學士建昌復書>⁴⁴⁾를 보면 영재에 대한 깊은 존경과 자신을 알아준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다.

夫君文章伯 그대는 문장으로 으뜸이라
 交遊天下選 천하가 선비를 가려 사귀던 터에
 散榜誰我數 쓸모 없는 나를 누가 쳤겠으리
 報桃良爾眷 진실로 그대 돌봄에 보답하고자 하여
 所以孫先生 그래서 선생 따라
 日功春秋傳 날마다 춘추전을 공부합니다

이 시는 1구에서 영재의 문장을 높이고 있다. 매천은 이견창의 문장을 가장 雅潔한 것으로 높게 여겼다. 즉, 영재의 글을 읽고 말하길 “중국을 잘 배워서 전배에 미칠 바가 아니다. 압록강 동쪽의 기풍을 탈하여 망연히 중국과 대등해 힘은 비록 얇으나 훌륭하고 훌륭하다. 마땅히 나의 詩才의 근본이 특출 나지 않지만 영재의 자세한 가르침에 그나마 이루었다”⁴⁵⁾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중에 영재에 대한 만사에서 그의 문장을 ‘가을 학 하늘에서 울며 먼 음향을 남기고, 봄누에 실을 뽑아 한가한 정 부치듯 하다’고 노래하게 된다.

2·3구에서는 영재의 고매한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당시 중앙에서는 권력다툼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통치배, 관료들이 관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매천은 보거과에서 시골 출신이라 하여 초시 초장에서 1등이었다가 회시에서 낙방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매천이었기에 영재와의 만남과 교류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43) 주승택, 「황현의 시세계」,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94.2, 170쪽.

44) 황현, <得寧齋學士建昌復書>, 『황현전집』 상, 187쪽.

45) 황원, 「追錄補遺」, 『매천전집』 권3, 45쪽.

讀甯齋曰 善學中國 前輩所不及 全脫鴨綠以東之風 昂然立中國 力則雖薄 善乎善乎 常曰 吾詩才本不拙好 甯齋之細針 乃成驢跡.

4구에서는 영재의 진실한 마음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학문과 인정을 동시에 겸비한 스승으로 따르고자 매일 공부에 주력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시는 매천이 영재에 대해 사제의 정을 느끼고 있다. 그 이면에는 당시 자신의 이익에 급급해 선비를 가려 사귀던 풍토를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영재의 진실함이 스승의 역할이 되어 학문정진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천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편협한 인물이 아니라, 배울 바가 있으면 믿음과 존경을 더해 교우의 정을 나누었던 것이다. 이는 벗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로의 시재와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두터운 믿음의 소산인 것이다.

영재 만년에 병이 들었을 때 매천을 몹시 그리워하여 죽기 전에 한 번 보기를 원했으며 운명의 순간에도 ‘매천, 매천’을 불렀다고 하니 두 사람의 깊은 정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진창이 사망한 뒤 수년이 지난 1905년에 쓴 <夢寧齋>⁴⁶⁾이다.

天下傷心事 천하에 속상한 일도 많은데
 夢見平生友 꿈에서 평생 벗을 만났네
 歡欣不多時 만남의 기쁨 얼마안가
 覺來悵恨久 깨어나니 오래도록 슬프구나
 蕭颯風敲竹 스산한 바람 대숲을 뒤흔드는데
 晁虛雪映牖 창가에 어른어른 눈이 비치네
 振衣獨出門 옷 단정히 입고 홀로 문열고 나가니
 寒天燦星斗 찬 하늘엔 별만 빛나네

이 시는 매천이 꿈결에서 벗을 만난 기쁨을 노래하였다. 생시에 친분을 잊지 않고 곡진하게 그리워한 시이다. 수련 상구에서 매천은 당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이는 세상일이 그릇되고 어그러져가는 상황을 ‘傷心事’라 하여 표현했다. 하구에는 이런 때 꿈속에서 평생 벗을 만났으니, 벗과 세상일을 의논하고 싶은 매천의 마음이 드러난다. 항상 나라에 대한 근심과 고민 속에서 떠나간 知音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던 것이다. 1905년이면 나라에서는 을사 보호조약이라는 미명 아래 거의 주권을 빼앗기게 된 시기이고, 매천 개인적으로는 창강이 이에 앞서 중국으로 망명을 한 시기여서 매천에게는 더없이 허전함이 가득했던 때일 것이다.

함련에서는 꿈속에서조차 상봉의 기쁨을 오래 나누지 못하고 깨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새벽이 되도록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래도록 슬픔에 잠겨있다. 경련에서 매천은 자신의 슬픈 심정을 자연에 빚댄다. ‘스산한 바람’이 대나무 숲을 뒤흔들고, 창가에 눈이 어른어른 날린다고 하였다. 평상시 늘 그리워하던 벗과의 짧은 만남에 대한 허전함과 아쉬움이 스산한 바람처럼 매천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언뜻 만난 벗의 모습이 창가에 눈처럼 어른어른 떠오른다. 미련에서 결국 매천은 옷을 단정히 입고 밖으로 나간다. 문열고 나가니 어른거리던 눈은 보이지 않고 찬 하늘은 무심히 별들만 빛내고 있다. 매천의 허전한 마음과는 상반되게 별들은 빛나고 있다. 이것은 더욱 매천의 쓸쓸한 마음을 가중시킨다. 이는 지우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과 죽은 후에도 잊지 못하고 생시에 만난 듯한 정을 나누는 신망의 발로인 것이다. 꿈에서 본 벗의 모습을 그리며 애잔한 감정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상으로 매천이 창강과 영재와의 깊은 교유를 시를 통해 표현한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46) 황현, 앞의 책, 306쪽.

매천은 평생의 벗으로서의 사귀를 말했고, 지음에 대한 신망의 정조를 곡진하게 표현하였다. 다음은 이산 유제양에 대한 시를 살펴보겠다.

2) 興趣의 정조

柳濟陽(1846~?)의 자는 洛中이며, 호는 二山·蘭榭·岸船齋·雙峰 등이 있고, 본관은 文化이다. 이산은 동향의 왕씨일문의 소천 등과 함께 매천의 평생 문우였고 매천과는 30여 년 동안 많은 수창시를 남겼다. 구례 토지면 오미리 출신으로 99간 전통 한옥으로 유명한 雲鳥樓의 주인이다. 1878년 창강 김택영이 지리산 여행할 때 이산은 창강과 함께 수창한 바 있고, 또 일찍이 매천을 통하여 영재 이견창에게 자신의 시집『岸船詩草』의 교정을 구한 바 있다.⁴⁷⁾ 이산의 시풍은 당·송의 근체시를 전범으로 하면서도 당시의 풍격을 추구했다. 매천이 이산의 雲鳥樓에 대하여 읊은 시⁴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田無豐儉屋無塵 부족할 것 없는 전원 때문지 않은 집
有此園林足隱淪 이런 원림에서 은둔하기가 좋네
頭白已休干世志 머리털 희어지니 세상에 간여할 뜻 없고
眼明難得解詩人 눈이 밝아 시인 목객 알아보기 어렵지 않구나
花間藥臼鳴山響 꽃 사이 약 절구통 소리 산을 울리고
月下魚舟喚水隣 달 아래 고기잡이배는 이웃친구를 부르네
最是西軒留客處 이 서쪽 마루는 손님 머물기 가장 좋아
松風如雨酒生鱗 솔바람 비처럼 시원하고 술잔에 잔물결이 이네

이 시를 보면 운조루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알 수 있다. 항상 많은 시인목객들이 운조루에 찾아오니 주인의 아낌없는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시인을 보는 눈 또한 밝아서 많은 시인들이 모여 흥취를 나눈다. 그 속에는 매천이 벗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들어있다. 매천은 운조루를 ‘부족할 것 없는 전원 때문에 때문지 않은 집’이라 했다. 이는 중앙의 고관 벼슬아치들의 집처럼 화려한 인사들이 드나드는 집이 아니라, 전원 속에 조용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은거의 집을 말한다. 집 주인의 소박한 풍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은둔하기에 족하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어지러운 세상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知音과의 詩作에 무게를 두고자 하는 집주인을 노래한다. 경련에서 매천은 운조루의 풍취와 함께 이산의 흥취를 노래한다. 낮에는 약초를 캐어 빵아놓는 수고로 ‘약 절구통’소리가 주변 산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고깃배를 띄우고 달 아래에서 낚시를 하니, 이웃 친구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여유와 멋이 묻어나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王勃의 滕王閣序 중에, ‘네 가지 아름다움을 갖추고, 두 가지 어려움도 함께 하였으니, 중천을 아득히 바라보고 한가한 날에 즐거운 놀이를 지극히 한다’⁴⁹⁾라고 하였다. 四美具란 좋은 때, 아름다운 경치, 이것을 감상하는 마음, 즐거운 일을 이른다. 二難은 두 가지 만나기 어려운 것으로 훌륭한 주인과 아름다운 손님을 이른다. 위 시에서도 좋은 벗이 있고, 넉넉한

47) 위의 책, 18~19쪽.

48) 『求禮樓亭集』, 구례문화원, 1996, 70쪽.

49) 王勃, <滕王閣序>, 『古文眞寶』, 學民文化史, …四美具 二難并 窮睇眄於中天 極娛遊於暇日…

주인의 인심이 있고, 자연의 풍광이 일치된 곳이다. 이러한 까닭에 손님들은 머물기를 즐거워한다. 때마침 솔바람이 불어와 비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술잔에는 물결이 생긴다고 했다. 이는 집주인 이산이 주변 벗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늘 시름 속에 한 줄기 시원한 비처럼 여유를 찾게 해준다는 표현이다.

다음 시 <歲暮懷人著作, 柳二山濟陽>을 살펴보면 흥취의 정조를 다시금 느낄 수 있다.

門內雙白鶴 문 안에 한 쌍의 백학이요
 門外兩行柳 문 밖에 두 그루 버들이라
 抱郭溪如練 성곽을 두른 시냇물은 이어지고
 屐痕明沙厚 신발자국은 모래에 깊이 남았네
 應有往來人 응당 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日看塘心藕 날마다 연못 속 연뿌리를 쳐다보네
 借問人何如 빌려 묻노니 사람들은 어떠한가
 惱閒催皓首 머리를 식히며 늙어감을 재촉하네
 常尋有花園 늘 꽃동산을 찾아 나서지만
 不飲無客酒 마시지 않으니 술친구도 없네
 唐詩寫小本 당시 한 권을 기록해서
 一篇長在手 한 편은 손안에 간직하고 다니네
 滿壁佳山水 벽에 가득한 아름다운 산수그림들
 臥游終吾壽 누워서 남은 삶을 마무리 하리라
 我每見之驚 나는 늘 보면 놀랍기만 한데
 問否於古有 물어본 적이 옛날에도 있었던가

이 시는 첫 수에서 이산이 살고 있는 집을 묘사한다. 문안에는 한 쌍의 백학이 있는 듯 같고 문 밖에는 두 그루의 버들이 있다고 노래한다. 집 앞에 시냇물은 이어져 있고 손님들의 발길이 잦은 듯 신발자국은 모래에 선명하다. 2수에서는 그 집 속에 사는 주인의 생활을 그린다.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니 응당 찾아오는 손님은 많은 것이다. 주인은 그런대로 이들과 어울리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인간의 미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적 이상과 결부된다. 자연의 미는 인간의 미처럼 사회적 이상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현실과 이상의 일치라는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⁵⁰⁾ 3수에서 이산은 늘 풍류를 즐기기는 하지만 술은 하지 못하였나보다. 이는 달리 보면 많은 벗들과 사귄다는 단순한 ‘객주’와의 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이산이 평생 시작에 몰두하였던 바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한 권 기록해서 한편은 손안에 간직하고 다니네’라고 한 것이다. 이산은 어릴 때 오로지 시에 뜻을 두고, 매일 당·송시를 외우고 그 운에 차운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는데, 몇 십 년 동안 게으른 적이 없었다.⁵¹⁾ 이같이 시에 대한 깊은 성벽을 지니고, 특히 근체시를 연마하여 만 수에 가까운 시편을 남겼다. 이산이 단순하게 풍류를 일삼은 것이 아니라, 시적 교유와 시작을 통해 시인의 흥취를 발휘한 것을 그린 것이다.

50) 강대석, 앞의 책, 34~36쪽.

51) 황현, 『雙峰詩集序』, 『매천전집』 권4, 22쪽.

4수에서는 이산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매천의 해석이다. 시인의 주관에 의해 새롭게 의기가 부여된 물경을 주관 물경이라 한다. 자아의 발현이 주관적 정서에 닿아 있어 주관 물경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실현양상을 구체적 물상과는 달리 과장되고 추상적인 형태를 유지한다. 그 정서의 특징은 작자의 독특한 주관적 정서에 의한 의외감을 준다는 데에서 미학적 성과를 이룩한다.⁵²⁾ 여기서도 매천은 '벽에 가득한 아름다운 산수그림'이라 하며 매천의 주관에 의해 해석된 새로운 의미로 이산의 삶에 있어 자연과 늘 함께 한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이는 곧 이산과 나눈 시의 정조는 사회적 의미에서보다는 자연의 흥취 속에 시적 교유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매천은 이산의 삶을 경물과 일치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가까이서 시적 교유를 통해 벗의 삶이 자신의 근심 어린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상으로 이산 유제양에 대한 시를 통해 그에 나타난 정조를 살펴보았다. 매천은 이산의 자연과 일치된 삶에서 고향의 풍치와 시속에 내재된 흥취를 드러내고자 했다. 지금까지 매천의 교유시를 통해 그 속 표현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스승과의 교유시를 통해 불운과 시름의 정한을 드러냈고, 詩友들과의 교유시 속에서는 자득과 구국의 의지에 대한 우의를 표현했다. 또한 지음과의 교유시를 통해서 깊은 신망과 흥취의 정조를 나타낸 것을 알았다.

Ⅲ. 맺음말

본 논문은 매천의 교유시에 관한 연구이다. 매천이 평생 교유했던 인물 중에서 불운했던 스승에 대한 情恨을 노래한 시, 詩友들과 더불어 시적 논쟁을 통해 友誼를 나타낸 시, 평생의 벗인 지음에 대한 情操를 표출한 시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로 인해 매천의 교유시 의미와 그의 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불운한 스승에 대한 情恨을 표현했다. 매천은 그의 스승들이 비록 현재의 窮한 위치에 있으나 詩才만큼은 達의 경지에 있음을 말했다. 즉, 왕천사 봉주에게서는 시대적 좌절에서 오는 佛鬱의 정한을 그렸으며, 추금 강위에 대한 시에서는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시름의 정한을 나타냈다.

둘째, 시우들과의 시적 논쟁 통한 友誼를 드러냈다. 서로 다른 시풍과 시론을 피력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의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소천 왕소찬과 석정 이정직에게서는 自得하는 모습에 대한 우의를 나타냈으며, 해학 이기에게서는 강한 救國의 의지에 대한 우의를 드러냈다.

셋째, 지음에 대한 情操를 표출했다. 평생 지우로서 교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강한 信望과 더불어 興趣의 정조를 드러낸다. 먼저 창강 김택영과는 神交의 관계로 믿음의 정조를 나타냈다. 영재 이견창과는 자신을 알아주는 知己에 대한 지음의 정조를 한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이산 유제양과는 고향의 풍치와 절경을 노래하며 흥취의 정조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매천 교유시에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불운한 스승에 대한 佛鬱과 시름의 정한을 표현했으며, 시우들과의 시적 논쟁을 통한 自得과 救國의 의지에 대한 우의를 드러냈다. 그리고 지음에 대한 情操로 信望과 興趣의 정조를 표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매천 교유시의 情恨과 友誼 그리고 情操가 갖는 의미를 밝힐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매천 시의 일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2) 윤호진, 『한시의 의미구조』, 법민문화사, 1995, 217쪽.

참고 문헌

- 강 위, 『강위전집』상, 아세아문화사, 1987.
- 강대석,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광사, 2004.
-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 왕수환, 『개성가고』, 구례 문승이선생 소장본.
- 윤호진, 『한시의 의미구조』, 법인문화사, 2004.
- 이 기, 『해학유서』, 국사편찬위원회, 1971.
-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 1996.
- 황 현, 『梅泉全集』(전5),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 _____, 『황현전집』상하, 아세아문화사, 1978.
- _____, 김 준 역, 『梅泉野錄』, 교문사, 1994.
- _____, 崔昇孝 편, 『文墨萃編』상하, 미래문화사, 1985.
- 『古文眞寶』, 學民文化史
- 『구례누정집』, 구례문화원, 1996.
- 권순열, 「승려와의 교유시」, 『송천 양응정의 시문학 연구』, 월인, 2002.
- 류연석·황수정, 「매천의 교유를 통한 의식세계 연구」, 『과학과 교육』 제10집, 순천대 과학교육연구소, 2002.
- 윤경희, 「황현의 시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 박준규, 「송재 나세찬의 교유인물과 교유시」, 『송재 나세찬의 시문학 연구』, 전라남도, 1996.
- 박충록, 『조선후기 삼대시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4, 41쪽.
- 장선희, 「근대후기 호남지역의 한문학 활동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1.
- 주승택, 「황현의 시세계」,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94.
- 황수정,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_____, 「梅泉 黄玑의 傳記研究」,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논문투고일 : 2004.6.29. 심사완료일 : 2004.7.31. 게재확정일 : 2004.8.13>

<Abstract>

A Study on Gyo-yu-si(poetry on personal relations) of Maechun Hwang Hyeon

Hwang, Soo-jeong

This is a study on Gyo-yu-si(poetry on personal relations) of Mae-chun. This study focuses on: verses on love for his poor and unlucky teachers, friendship shown through poetic arguments with friends, affection toward lifelong frien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ld of his poetry.

First, he represents the love toward poor teachers. The verse of Wang-sa-gak describes love deploring frustrating social condition at that time. And the verse of Gang-we describes anxiety about the limited social positions.

Second, he describes the love toward friends through poetic arguments. The verses about Wang-sa-chan and Lee Jeong-jik deal with friendship toward those who are self-complacent. The verse about Lee Gi describes the love toward his strong intention to save the country.

Third, he represents affection toward friends. The verse about Kim Taek-Young describes constant trust. The verse about Lee Gun-Chang describes the love toward a friend who recognizes his thoughts and ability. The verse about Ryu Je-Yang describes the spectacular scenery and elegance of his hometown.

Through examination of the ver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meaning of the love represented in Maechon's verses.

Key words : Maechun, Gyo-yu-si, poetic arguments, lifelong friends